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2010.12, pp.5~31

북한 교성곡의 효시 「압록강」 Aploggang, The begining Cantata In North Korea

배인교(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교수)

차 례

- | | |
|--------------------------|---------------------|
| 1. 들어가며 | 4. 「압록강」에 대한 평가의 추이 |
| 2. 평화적 민주건설시기 북한 음악계의 상황 | 5. 나가며 |
| 3. 장편서사시에서 교성곡으로, 형상의 전환 | |

1. 들어가며

김옥성이 교성곡 「압록강」을 작곡한 시점은 1949년으로, 북한에서는 이 시기를 평화적 민주건설시기(1945년 8월 15일~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 이전)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이 패망을 선언한 시점 이전에 이미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념논쟁이 활발하였으며, 일본 패망 이후 남과 북에 각각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시작되면서 이념은 논쟁을 넘어 지역적 고착에 이르렀다. 결국 1948년 9월, 북한은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고, 이후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치체제가 대립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며, 올해로 한국전쟁 발발 60년이 되었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8-411-J03302)

2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한편 이 시기에 남한의 음악계가 양악 쪽으로 급격히 기울면서 음악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어갔던 반면, 북한 음악계에서는 이 시기를 새로운 음악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가득 차 있었던 시기로 평가한다. 그 이유는 “부르조아적 반인민적 문화와 그 잔재를 배격하고 민주주의적이며 진보적인 문화의 전통의 진정한 계승자로 되면서 오직 인민이 주인으로 되는 문화”¹⁾가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인민이 주인으로 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북한에서는 기존의 부르주아 사상에 물든 문화를 척결하고 “당”이 음악문화 전반을 장악해갔으며, 결국 음악은 당의 요구에 철저히 복무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북한에서 활동한 작곡가들은 그 이전의 음악과는 다른 양상의 음악을 만들어야 했으며, 이에 따라 실험적으로 음악을 만들어 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시기에 작곡된 다양한 형태의 음악 중 북한 교성곡(交聲曲)²⁾의 효시가 되는 김옥성 작곡 「압록강」의 음악사적 의미를 검토해보려 한다. 그 이유는 교성곡 「압록강」의 가사가 바로 문학에서의 수령형상화에 일조했다고 평가하는 조기천의 장편서사시 「백두산」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문학 작품에서 음악 작품으로의 형상의 전환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당시 북한 음악계의 상황을 검토해 볼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치적 요구가 반영된 작품의 양상 중 북한 문학계에서 인민들에게 김일성과 항일무장투쟁의 내용을 교양시키고 수령형상화 작업에 앞장섰던 조기천의 장편서사시 「백두산」이 교성곡 「압록강」으로 전환된 양상을 가사의 전용양상과 「압록강」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단, 음악작품의 상세한 음악학적 악곡분석, 즉 작곡방식과 화성 등은 양악작곡

1) 리히립, 『해방후 10년간의 조선음악』, 『해방후 조선음악』, 조선 작곡가 동맹 중앙 위원회, 1956, p.3.

2) 교성곡은 칸타타(cantata)라고도 하며 관현악 반주로 독창, 중창, 합창 등을 부르는 대규모의 성악곡이다. 그리고 칸타타는 오라토리오와 형식은 비슷하나 스토리가 있다는 점에서 그와 구별된다.

연구자들의 역할로 돌리고, 본고에서는 간단한 악곡분석만을 하도록 하겠다.

2. 평화적 민주건설시기 북한 음악계의 상황

평화적 민주건설시기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조선로동당이 사회 전반을 장악하면서 “당”이 인민들의 생활을 계획하고 지도하는 체제를 구축해 가던 시기이다. 이러한 정치적인 의도에 음악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기간 동안 제시된 음악관련 주요 문건은 크게 음악인들의 조직 완비와 작곡가들의 임무에 관한 문건으로 나눌 수 있다. 즉,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음악인들을 조직적으로 묶어 놓음으로써 음악을 선전의 도구로 삼게 되었으며, 조직 속에서 작곡가들은 당의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창작활동을 할 것에 대한 임무를 규정해 놓은 것이다.

먼저, 조직완비에 관한 정책은 1946년 5월 24일 북조선 각 도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선전원, 문화인, 예술인대회에서 김일성이 한 연설인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³⁾에 드러난다. 김일성은 이 교시에서 예술이 반드시 조직된 역량으로 민주주의 선정에서 강력한 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당의 이름으로 예술인들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음악계에는 1946년 3월에 북조선예술연맹이 설립된 후 산하 기관으로 북조선음악건설동맹이 조직되었으며, 이후 10월에는 북조선예술총연맹이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개편됨과 함께 음악 역시 북조선음악동맹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북조선음악동맹의 산하로 1946년 7월에 북조선 교향악단의 조직을 필두로 북조선 가극단(1947년), 국립 합창단(1947년), 조선 고전악 연구소(1947년)가 만들어졌으며, 이후 1948년 2월에는 이 모든

3) 김일성,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북조선 각 도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선전원, 문화인, 예술인대회에서 한 연설(1946년 5월 24일)」, 『김일성저작집 2(1946. 1~1946. 12)』,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9, pp.231~235.

4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단체를 통합하여 오페라 발레트 씬포니아 극장으로 국립 예술 극장이 조직되었다. 그리고 사회단체인 로동자 예술단, 농민 예술단, 청년 예술단이 조직되고 이후 모두 종합하여 노동자예술단으로 발전되었다. 또한 부대 내 군무자들의 음악생활을 위하여 조선인민군협주단, 내무성협주단이 조직되었고, 방송합창단, 방송관현악단이 만들어졌다.

북조선예술연맹에서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개편되면서 점차 조직적이고 당의 의지를 반영하는 단체로 변화되었다. 즉, 북조선예술연맹이 전문적인 작가와 예술인, 그리고 예술소조핵심들을 망라한 대중적 조직이었던 데 비해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전문성이 강화된 전문예술가조직⁴⁾이었다. 또한 예술연맹의 조직들이 지역단위로 분산적 활동을 하였던 데 비해,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중앙위원회와 각 도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하고 민주주의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예술인들은 당의 문예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조직하고 동원하는 임무를 수행⁵⁾하게 되었다.

그리고 북조선예술연맹의 산하기관이었던 음악건설동맹에서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북조선음악동맹으로 개편된 후 당의 지도하에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를 확립하고, 광범한 음악 역량을 포함하던 것에서 점차 전문가들의 창조적 단체로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연주 단체들은 기존의 레퍼토리를 따르되 광범한 대중들에게 새 노래를 마련해주어야 할 임무가 부여⁶⁾되었다.

1947년 9월 16일 북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3차 상무위원회 결정서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며 군중문화사업을 활발히 전개할데 대하여>에서는 조선 음악의 작곡가들에게 사실주의 작품들을 만들어 낼 것을 요구하였다.

결정서의 내용 중에서 예술가와 작곡가들에 대한 요구를 정리해 보면 대체로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로, 예술가들 속에 남아 있는 일제의 잔재를 모두 청산하고 민주주의사상교양사업을 전개하여 모든 작가와 예술

4) 리히림, 『해방후 조선음악』, 문예출판사, 1979, p.25.

5) 리히림, 앞의 책(1979), pp.25~26.

6) 리히림, 앞의 책(1956), p.12.

북한 교성곡의 효시 「압록강」 5

인들로 하여금 인민들의 현실생활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반영한 문학예술 작품을 많이 창작할 것을 요구하였다. 두 번째로는 인민들의 생활과 감정 등을 진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작가나 예술가들이 현실에 깊이 들어가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창작을 하는 사실주의적 창작방법을 구현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세 번째로는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되 외국의 문화도 현실에 맞게 섭렵할 것과, 네 번째로 군중문화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하여 현실을 반영한 가요를 창작할 것을 요구하였다.⁷⁾ 그리고 음악 분야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이 시기에 만들어진 여러 작품에서 반영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많은 가요들을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 시급하게 요구되었기에 작곡가들은 가요를 집중적으로 창작함으로써 당 정책을 반영하였다. 이 시기에 나온 가요의 형태와 스타일에는 송가⁸⁾, 행진곡⁹⁾, 민요풍으로 된 노래¹⁰⁾, 서정가요¹¹⁾가 있으며, 이중 「인민 공화국 선포의 노래」는 “찬가의 면모를 가졌으면서도 한개의 불요 불굴한 투쟁의 빠포스가 흐르고 있다.”¹²⁾는 평가를 내렸을 정도로 당시에 인민공화국을 선포한 것에 대한 의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가요 외에 합창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낸 곡은 김옥성 작곡의 칸타타 「압록강」이 있으며, 가극 분야에서는 「금강산 8선녀」와 「심청전」, 「춘향전」, 「콩쥐와 팥쥐」¹³⁾ 등이 있다.

이상의 다양한 음악 사업이 이루어졌던 북한에서 이와 함께 진행된 것이 바로 음악계 내의 사상투쟁이다. 사상투쟁은 순수예술주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바로 예술 지상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소수를 위한 음악의 입장’에 대한 비판이다.

7)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며 군중문화사업을 활발히 전개할데 대하여-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한 결론 1947년 9월 16일>, 『김일성저작집 3(1947. 1~1947.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436~442.

8) 「김일성 장군의 노래(1946)」, 「애국가(1947)」, 「빛나는 조국」, 「인민 공화국 선포의 노래(1948)」 등

9) 「조국보위의 노래(1950)」, 「보위행진곡(1949)」, 「빨찌산의 노래」 등

10) 「발갈이 타령」, 「모내기노래」, 「바다의 노래」

11) 「산으로 바다로 가자」, 「봄노래」, 「비료 달구지」

12) 리히림, 앞의 책(1956), p.20.

13) 1956년의 책에 보이는 「콩쥐와 팥쥐」는 1979년의 책에서는 작품명이 「꽃신」으로 바뀌어 등장한다.

6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해방후 조선음악(1956)』에 소개된 〈소수를 위한 음악의 입장〉은 음악에 술의 계급성과 민족성을 거부하고, 예술지상주의, 혹은 순수예술주의의 입장이라고 설명¹⁴⁾하고 있다.

그리고 1956년에 집필된 리히림의 글 「해방후 10년간의 조선음악」에서는 민주건설시기에 당의 지도에 부응하지 않고 부르주아 음악을 주장했던 단체의 근원지를 원산에 있던 〈근화 음악단〉에서 파생한 〈남해남 악극단〉과 당의 주도 이전에 발생한 음악단체들로 보고, 이들이 당시 사실주의 작곡가들의 작품을 폄하하거나 과거의 낡고 퇴폐적인 레퍼토리를 연주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즉 〈소수를 위한 음악의 입장〉을 대변했던 이들은 정치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고 인민이 즐겨 부르는 혁명적 행진곡들을 “학생의 노래”라고 비난하였으며, 혁명적군중가요들을 유치하고 천한 것이라고 비방 중상하고 인민성, 민족적특성, 통속성을 구현한 가극작품을 천대하였으며, “성악에 대한 기악의 우위”를 주장하고 정치적 무관심성과 무사상성을 표명하며 북한 음악의 방향에 찬동하지 않았음¹⁵⁾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이러한 반동적이고 퇴폐적인 사조와 단체는 척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1946년 말부터는 제도개혁에 따른 의식 개혁을 위해 ‘건국 사상 총동원 운동’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에서 발생한 사건이 바로 그해 말에 있었던 ‘『응향』사건¹⁶⁾’이다. 1946년 말의 ‘『응향』사건’ 이후 1947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제1차 확대상임위원회에서는 「민주 건국을 위한 노력과 투쟁을 고무하자」라는 결정서를 채택하였으며, 이 결정서에서 특히 강조된 것은 작가들이 고상한

14) 리히림, 앞의 책(1956), p.28.

15) 리히림, 앞의 책(1956), pp.28~29.

16) 응향 사건은 1946년 함경남도 원산의 원산문학가동맹이 출간한 광복 기념 시집 『응향(凝香)』에 얽힌 필화 사건이다. 당시 시집에 실려 있던 시 가운데 일부가 도피적, 패배적, 피상적이라는 이유로 1946년 12월 20일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상임위원회가 소집되면서 필화 사건으로 접화되었다. 이후 중앙상임위원회는 이 시집을 반동적인 것으로 규정한 결정서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문화전선』 제3집(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1947)에 수록되었다.

북한 교성곡의 효시 「압록강」 7

예술을 창조하기 위해 공장·광산·농촌·어촌 등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영웅적 노력과 투쟁과 승리와 영광을 고상한 사실주의 혹은 고상한 리얼리즘으로 구현해야 했으며, 결국 1947년 3월 이후 긍정적 주인공과 혁명적 낭만주의적 성격을 띤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사실주의)이 유일한 창작 방법으로 확립되었다.¹⁷⁾

당시 북한 문학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경향과 변화는 음악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즉 음악계에서 있었던 사상투쟁인 〈소수를 위한 음악의 입장〉을 비판했던 예의 글을 통해, 음악가들도 반동적이고 퇴폐적인 사조를 몰아내고 고상한 예술을 창조하기 위해 현장으로 들어가야 하며, 현장을 기초로 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방법론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만이 고상한 음악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장편 서사시에서 교성곡으로, 형상의 전환

교성곡 「압록강」은 조기천의 1947년 작인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모태로 하고 있다. 조기천의 약력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는 함경북도 회령군에서 1913년에 출생하였으며, 옴스크고리끼 사범대학을 마친 후 조선사범대학에서 약 2년간 교원생활을 했던 무렵에 시를 창작하기 시작하였다. 해방 후 고향에 돌아와 『조선신문』의 문예부에서 일하면서 본격적으로 시를 창작하였으며, 한국전쟁 발발 후 중군작가로 활동하다가 1951년 7월 평양에서 전사하였다. 조기천은 1946년에 서정시 「두만강」을 발표하였으며, 1947년에는 그의 대표작이 되는 「백두산」을 발표하여 제1회 북조선 예술축전에서 1등상을 수상하였다.¹⁸⁾

「압록강」의 가사로 채택된 「백두산」은 1946년부터 1947년 사이에 있었

17) 김재용, 「초기 북한 문학의 형성 과정과 냉전 체제」,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pp.95~99.

8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던 '건국 사상 총동원 운동'과 '고상한 리얼리즘'의 영향 하에 만들어진 작품이다. 즉, 조기천은 문학이 사람들의 영웅적인 투쟁과 승리를 보여줌으로써 대중들을 교양하는 역할이 요구되던 당시에 김일성과 만주지역에서의 항일 유격 투쟁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이 서사시를 썼다¹⁸⁾고 할 수 있다.

「압록강」의 가사 분석에 앞서 「백두산」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백두산」은 머리시 · 1~7장 · 맺음시로 구성되었으며, 1946년부터 기획되어 1947년에 발표되기까지 6개월의 집필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먼저 머리시에서는 백두산의 위상과 백두산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빨찌산들의 항일무장투쟁을 암시하며 시의 기본적 배경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1장에서는 홍산별전투와 김대장으로 묘사되는 김일성과 또 다른 소설적 주인공인 철호가 등장한다. 2장과 3장은 빨찌산인 철호와 그를 호모하며 그에게서 교육받는 꽃분이와의 활동과 사랑, 항일투쟁의 정신이 묘사되어 있다. 4장과 5장에서는 빨찌산부대의 고충과 철호를 따라 꽃분이가 함께 투쟁의 길을 떠나는 장면이 그려진다. 6장에서는 H시로 묘사되는 보천보 전투장면이 긴박하게 서술되어 「백두산」의 클라이맥스부분이 된다. 그리고 7장에서는 철호의 죽음과 남은 빨찌산들의 결의가 표현되었으며, 마지막 맺음시에서는 백두산이 갖는 항일투쟁의 역사적 의미와 민족적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백두산」의 시 중에서 교성곡 「압록강」에 채택된 부분은 H시의 침투장면이 묘사된 제6장이며, 6장 중에서도 1부터 3까지만 채용하여 작곡하였다. 즉 전체 4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성곡 「압록강」의 1악장은 6장 1의 1행부터 17행의 시를 채택하였으며, 2악장에서는 2의 1행부터 10행, 그리고 18행부터 29행을, 3악장에서는 3의 3행

18) 여지선, 「조기천의 「백두산」과 개작의 정치성」, 『우리말글』 제36집, 우리말글학회, 2006, p.316.

여지선은 이 논문에서 조기천의 작품으로 「두만강」과 「백두산」 외에 “가사작품인 「압록강」(1949)을 발표하기도”했다고 하였으나 「압록강」의 가사를 위해 조기천이 별도의 작업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압록강」의 시 일부를 김육성이 발췌하여 「압록강」 작곡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안함광의 평론을 비롯한 당시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 김재용, 앞의 책, p.103.

북한 교성곡의 효시 「압록강」 9

부터 14행까지, 마지막 4악장에서는 3의 15행부터 21행, 22행부터 25행, 그리고 29행을 발췌하여 가사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시의 순서대로 음악의 가사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 조기천의 「백두산」 6장과 김옥성의 「압록강」의 가사를 비교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압록강」 1악장

행	조기천 「백두산」 6장 1	김옥성 「압록강」 가사
1	이 나라 북변의 장강-	1 이 나라 북변의 장강-
2	칠백 리 압록강 푸른 물에	2 칠백 리 압록강 푸른 물에
3	저녁해 비졌는데	3 저녁해 비졌는데
4	황혼을 담아 싣고	4 황혼을 담아 싣고
5	떼목이 내린다 떼목이 내린다.	5 떼목이 내린다 떼목이 내린다.
6	늪의 눈물겨운 이야기	6 늪의 눈물겨운 이야기
7	떼목 우의 초막에 깃들었느냐?	7 떼목 우에 깃들었느냐?
8	늪의 한많은 평생 모닥불에 타서	8 늪의 한많은 평생 모닥불에 타서
9	한줄기 연기로 없어지느냐?	9 한줄기 연기로 없어지느냐?
10	《물피리 불며 울며 흘러 갈 제	10 물피리 불며 울며 흘러 갈 제
11	강 건너 천리길을 이미 떠난 몸	11 강 건너 천리길을 이미 떠난 몸
12	재 넘어 천리길을 이미 떠난 몸	12 재 넘어 천리길을 이미 떠난 몸
13	재 넘어 구름 따라 끝없이 간다	13 재 넘어 구름 따라 끝없이 간다
14	에헤 에헤용 끝없이 가요》	14 에헤 에헤용 끝없이 간다
15	웨 저노래 저다지 슬프단 말가,	14 에헤 에헤용 끝없이 간다네
16	이 땅의 청청 밀립 찍어내리거니	15 저노래 어이 슬프단 말인가,
17	그 노래 어이 슬프지 않으랴!	16 아 이 땅의 청청 밀립 찍어내리거니
		17 그 노래 어이 슬프지 않으랴!
		17 슬프지 않으랴
		1 이 나라 북변의 장강-
		2 칠백 리 압록강 푸른 물에
		3 저녁해 비졌는데
		4 황혼을 담아 싣고
		5 떼목이 내린다 떼목이 내린다.
		눈물겨운 떼목이 내린다

위의 1악장 가사를 보면, “떼목 우의 초막에 깃들었느냐”의 시어에서 ‘초막에’라는 시어가 탈락된 점과 의성어인 ‘야’가 추가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9행과 14행, 17행이 반복되었으며, 1행부터 5행까지 1악장의 끝에서

10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다시 반복하면서 5행과 6행, 7행을 합쳐 ‘눈물겨운 폐목이 내린다’로 1악장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 「압록강」 2악장

행	조기천 「백두산」 6장 2		김옥성 「압록강」 가사
1	황혼도 깊어지고	1	황혼도 깊어지고
2	물결도 차지고	2	물결도 차지고
3	서늘한 밤바람	3	서늘한 밤바람
4	강가에 감돌아돌 무렵	4	강가에 감돌아돌 무렵 (3회 반복)
5	강 건너 바위 밑에서 휘-익	5	강 건너 바위 밑에서
6	휘파람소리 나더니	6	휘파람소리 나더니
7	폐목에서도 모닥불이 번뜩번뜩	7	폐목에서 모닥불이 번뜩번뜩 번뜩 번뜩 번뜩 번뜩 번뜩
8	내려가던 폐목이 돌아간다 돌아간다	8	내려가던 폐목이 돌아간다 돌아간다
9	머리는 저편 강가에	9	머리는 저편 강가
10	꼬리는 이편 강가에-	10	꼬리는 이편 강가 폐목다리 이루었네
		1	황혼도 깊어지고
		2	물결도 차지고
		3	서늘한 밤바람
		4	강가에 감도네
18	군인들이 달아나온다	18	군인들이
19	달아나와선 폐목으로	19	폐목타고
20	압록강을 건너온다-	20	압록강을 건너온다-
21	빨찌산부대 압록강을 건너온다.	21	빨찌산이 압록강을 건너온다.
22	산밑에 그들이 숨었을 때	22	그들이 숨었을 때
23	그 폐목다리도 간데 없고	23	폐목다리 간데 없고
24	출렁-쳐절썩-	24	출렁-쳐절썩-
25	찬 물결만 강가에 깨여지는데	25	찬 물결만 강가에 깨여지는데
		25	찬 물결만 강가에 깨여지는데
26	멀리선-	26	폐목노래 멀리서 들려온다 들려온다
27	«띄우리라 띄우리라	27	띄우리라 띄우리라
28	배를 무어 띄우리라	28	배를 무어 띄우리라
29	폐를 무어 띄우리라!»	29	폐를 무어 띄우리라!
		27	띄우리라 띄우리라
		28	배를 무어 띄우리라
		29	폐를 무어 띄우리라!
		27	띄우리라 띄우리라
		28	배를 무어 띄우리라
		29	폐를 무어 띄우리라!

북한 교성곡의 효시 「압록강」 11

2악장에서는 1악장에 비해 가사를 반복하는 경향이 강하다. 황혼도 깊어지고 물결도 차지고 서늘한 밤바람 강가에 감도는 풍경을 네 차례 반복하고 있으며, 이는 빨찌산이 떼목다리를 만들어 만주에서 한반도로 진격했던 장면을 긴장감을 주며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압록강」 3악장

행	조기천 「백두산」 6장 3중 3-14행	김옥성 「압록강」 가사
3	살아서 살 곳 없고	3 살아서 갈 곳 없고
4	죽어서 누울 곳 없고	4 죽어서 누울 곳 없고
5	모두 다 잃고 빼앗겼으니	5 모두 다 잃고 빼앗겼으니
6	물어보자 동포여!	6 물어보자 동포여!
		6 물어보자 동포여!
		6 물어보자 동포여!
		6 물어보자 동포여!
7	가슴 찌르는 한숨으로	7 가슴 찌르는 한숨으로
8	이 강 건너 이방의 거친 땅에	8 이 강 건너 이방의 거친 땅에 거친땅에
9	거지의 서러운 첫걸음 옮기던 그날-	9 거지의 서러운 첫걸음 옮기던 그날-
10	그날부터 몇몇 해 지났느냐?	10 그날부터 몇몇 해나 몇몇해나 지났느냐
11	강 우에 밤안개 젖은 안개 떠돈다-	11 강 우에 밤안개 젖은 안개 떠돈다-
12	이 강 너은 백성의 한숨이나 아닌가	12 강넘어 백성의 한숨이나 한숨이나 아닌가
		12 강넘어 백성의 한숨이나 한숨이나 아닌가
13	물줄기는 솟아서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13 물줄기는 부서지고 솟아서 부서진다
14	이 강 너은 백성의 눈물이나 아닌가	14 강건너 백성의 눈물이나 눈물이나 아닌가
		3 살아서 갈 곳 없고
		4 죽어서 누울 곳 없고
		5 모두 다 잃고 빼앗겼으니
		6 물어보자 동포여!
		6 물어보자 동포여!

3악장에서는 「백두산」 6장의 3 중 3행부터 14행의 시를 사용하고 있는데, 6행의 “물어보자 동포여”를 네 번 반복하고 있으며, 3악장의 끝부분에서 3행부터 6행까지를 다시 한 번 반복하고 있다. 시어의 축약이나 삭제는 보이지 않으나 일부에서 시어의 변환이 보인다.

12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표 5] 「압록강」 4악장

행	조기천 「백두산」 6장 3 중 15~30행	김옥성 「압록강」 가사
15	오오- 압록강! 압록강!	15 압록강! 압록강!
16	허나 오늘밤엔 그대 날뛰라	16 오늘밤엔 그대 날뛰라 그대 날뛰라
17	격량을 일으켜	17 격량을 일으켜
18	황-황 강산을 울리라.	18 강산을 울리라. 압록강 압록강
		17 격량을 일으켜
		18 강산을 울리라. 압록강
19	이 나라의 빨찌산들이	19 이 나라 빨찌산들이
20	해방전의 불길을 뿌리려	20 해방의 불길을 뿌리며
21	그대를 넘어왔다-	21 그대를 넘어왔다- 압록강을 넘어왔다
		압록강 압록강
		압록강 압록강
22	애국의 심장을 태워 앞길 밝히며	22 애국의 심장을 태워 앞길 밝히며
23	의지를 갈아 창검으로 높이 들고	23 의지를 갈아 창검으로 높이 들고
24	이 나라의 렬사들이	24 이 나라의 렬사들이
25	조국땅에 넘어섰다.	25 조국땅에 넘어섰다.
26	압록강! 압록강!	26 압록강! 압록강!
27	격량을 치어들고	27 격량을 치어들고
28	황-황 강산을 울리라!	28 황-황 강산을 울리라!
29	거창한 가슴을 한 것 들먹이며	29 거창한 가슴을 한 것 들먹이며
30	와-와 격전을 부르짖으라!	30 와-와 격전을 부르짖으라!

「압록강」의 4악장에서는 「백두산」의 6장 3 중 15~30행의 시를 사용하였으며, 17~18행의 가사인 “격량을 일으켜 강산을 울리라”를 두 번 반복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압록강”의 도강(渡江)을 강조하기 위하여 “압록강”을 연이어 반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압록강〉에 사용된 가사를 보면, 극적인 요소를 부각시키기 위해 『백두산』 제 6장의 시어 일부를 반복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시어를 탈락시키거나 변화를 주면서 가사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조기천의 「백두산」의 주요 등장인물 중 하나인 “김대장”이 「압록강」에서는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으며, 항일혁명군들이 압록강을 넘어 국내로 진격하는 장면에 치중하여 곡이 씌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압록강」에 대한 평가의 추이

교성곡 「압록강」을 작곡한 작곡가 김옥성(1916~1965)은 황해도 송화군 출신으로 독학으로 음악을 시작한 인물이다. 그는 해방직후에 군중가요를 창작하였으며, 1947년에 조선인민군협주단에 입대한 후 본격적인 작곡활동을 시작하였다. 그의 작품 중 북한 교성곡의 효시가 된 「압록강」은 한국전쟁 발발 전인 1949년에 작곡되었다.

「압록강」은 「백두산」의 시어를 남녀혼성합창과 제창, 그리고 남성 중창과 여성중창, 독창, 레시타티브(recitative)로 형상하였는데, 악곡 전체에 흐르는 단조스케일과 저음의 선율의 진행, 그리고 외치는 듯한 혼성합창의 음색으로 인해 비장한 느낌이 만연한 곡이다.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관현악으로 이루어진 전주에서는 1악장부터 4악장에 걸친 전체적인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각 악장들은 대체로 3부분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A-B-A, 혹은 A-A'-B의 구조를 이룬다. 또한 1악장의 악상은 '느리게', 2악장은 '빠르게', 3악장은 '느리게', 4악장은 '조금 느리게 격동적으로'로 구성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비장하고 웅장한 감정 속에서 속도의 조절로 대비를 시키고 있으며, 4악장 피날레에서는 1악장 전주를 반복한 후 고음으로 강조하면서 끝을 맺는다.

이러한 음악적 성격을 갖는 「압록강」에 대한 평가는 음악이 작곡된 1940년대부터 현재까지 북한 내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왔다. 이에 「압록강」에 대한 시기별 평가의 양상과 평가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기천이 1947년에 집필·완성한 전체 1,564행의 장편 서사시 「백두산」은 압록강 이북에서 활동했던 항일 빨찌산들의 활동과 인민들의 상황, 그리고 역사적 사건인 보천보전투를 소재로 하여 예술적으로 형상화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²⁰⁾이다. 또한 소련을 후원세력으로 한 김일성이 자신을 중심으로 한 항일무장투쟁세력을 건국의 주역으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14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정치적 의도로 「백두산」을 활용하였으며, 조기천의 「백두산」은 바로 김일성의 상징적인 주체를 확립해 가는 데 기여했다²¹⁾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런데 조기천과 김옥성이 작품을 완성한 시기, 즉 1945년부터 북한 정치권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소련의 영향력은 상당했을 것임은 자명하다. 이는 1955년판 백두산의 속표지에 인쇄된 조기천의 헌사, 즉 “이 시편을 영웅적 해방군 소련 군대에 삼가 올리노라”²²⁾라고 쓴 부분에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당시 소련의 영향은 정치권과 문학계뿐만 아니라 음악계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북한에서 새롭게 만들어 내야 할 음악 양식과 스타일은 “민족 음악의 전통에 굳건히 립각하여 인민의 새로운 생활과 사상에 부합되는 음악의 새로운 장르들과 새로운 쓰짚”이며, “새 형의 애국주의, 혁명적 락관주의, 인민의 훌륭한 내면세계와 정신-도덕적 품모,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 이 모든 것을 내용으로 한 생신한 음악 양식과 쓰짚들이 개화”해야 하는데, 이러한 음악의 근거, 혹은 모본이 된 음악이 바로 소비에트음악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소비에트음악이 레닌의 원칙에 근거하여 소련 공산당의 향도 아래 성립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인민을 위한 음악이고, 예술의 참된 본질을 발현시키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에 의해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³⁾

기본적으로 소비에트음악에 대한 인식 속에서 당시 북조선의 음악계에서는 소련의 음악을 공부하는 모임이 결성되어 소련의 작곡가와 음악스타일을 적용하는 문제를 고민²⁴⁾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20) 여지선, 앞의 책, p.316.

21) 고현철, 「북한 정치사와의 상관성으로 살펴본 조기천의 1955년판 『백두산』, 『국제어문』 제35집, 국제어문학회, 2005. 12, p.264.

22) 고현철, 위의 책, p.236에서 재인용.

23) 리히림, 「해방후 조선 음악과 조선 인민의 음악생활에 준 소비에트 음악의 영향」, 『해방후 조선음악』, 1956, pp.248~251.

24) “지금 조선 작곡가들의 손에서 연구되고 있는 로씨야의 고전 오페라, 썸포니아 작품들과 탁월한 소비에트 작곡가들이 데·쉴스파코위츠의 썸포니아 제 5, 7, 10번과 오라토포리아 『삼림의 노래』, 유·썸보르의 썸포니아-칸타타 『콜리코브 초원에서』, 하차투리안의 썸포니아 제2번과 『가야네』 등은 반드시 조선 음악 해당 부분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게 하고 있다.” 리히림, 위의 책(1956), p.252.

북한 교성곡의 표시 「압록강」 15

김옥성의 「압록강」은 소련 음악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는 “조선 음악에서 오라토리아-칸타타가 조선의 서사시적 현실을 반영하면서 김옥성, 리정언 등 작곡가들에 의하여 등장한 사실은 위대한 서사시적 현실을 경험하고 반영한 소비에트 오라토리아 칸타타의 영향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²⁵⁾는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47년 봄에 있었던 북한 평단의 「백두산」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던 것과 달리 소련의 음악적 영향을 받아 작곡된 「압록강」에 대한 당시 평단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압록강」에 대한 첫 번째 평가는 안함광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안함광의 1949년 예술축전에 새롭게 작곡된 곡을 평하는 글에서 “작곡 부문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민족 음악 수립 운동에서의 기본적인 방향인 선율의 민족적 형식과 민주주의적 내용의 악상표현으로 노력 향상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서두와 함께 “김옥성 씨 작곡 교성곡 「압록강」은 조기천씨 작 「백두산」에서 발췌한 작품으로 큰 스케일과 민족해방 투쟁에 있어서 승리의 내일로 지향하는 우렁차고 힘찬 빨찌산의 모습을 잘 표현”하였다고 쓰고²⁶⁾ 있다.

안함광이 「백두산」이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혁명적 낭만주의를 표현했다는 평가와 달리 「압록강」에서는 민족해방투쟁과 힘찬 빨찌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백두산」에 대한 안함광과 조기천의 논쟁과 이를 중재한 김창만의 전거²⁷⁾가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25) 리히립, 위의 책(1956), pp.251~252.

26) 안함광, 「예술축전의 성과와 교훈 - 1949년도 예측을 보고-」, 『안함광 평론선집 4 - 문학과 현실』, 박이정, 1998, pp.280~281.

김재용·이현식 편 『안함광 평론선집 4』에 실려있는 안함광의 글에는 ‘김옥성’을 ‘전옥성’이라 하고 ‘교성곡’을 ‘교향곡’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오타인 것인지 원문이 그러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오기이다.

27) 1947년 봄, 『백두산』을 둘러싼 논쟁은 안함광이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혁명적 낭만주의”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조기천이 비판하였으며, 논쟁이 계속되자 결국 당의 문예 정책을 책임지고 있었던 김창만이 개입하여 일방적으로 안함광의 잘못을 비판했던 일련의 논쟁을 말한다.

16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전후 「압록강」에 대한 평가는 계속해서 긍정적이다. 먼저 「압록강」과 창작 시기와 가장 가까운 1956년 「해방후 10년간의 조선 음악」에서 김옥성 작곡의 칸타타 「압록강」을 ‘모범적인 합창 음악’으로 평가하면서 전체 4악장의 곡 중 1악장과 4악장의 형상이 선명하고 성실하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된 글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제1악장에서 『이 나라 북변의 장강 칠백리 압록강』은 민족의 눈물이 난다.(중략)

제1악장의 중간 부분에서의 남성 독창은 특히 거대한 랑만으로 관철되어 있으며 그것은 한 많은 평생을 회고하는 엄숙하고 비장한 정서로 일관된 제 1악장 속에서도 전반부와 반복되는 후반부와의 사이에서 작품 형상의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여 빛나고 있다.(중략)

제4악장은 김일성 원수가 지도한 빨찌산 부대들이 압록강을 건너오는 정경을 묘사하였는바 악곡은 노한 격랑처럼 격정과 흥분에 쌓인다.

제1악장과 제4악장은 형상의 뚜렷한 대조를 보이면서도 작품의 음조를 통하여 심리의 추리는 자연을 커다란 힘으로 성격화하고 있는 것이다.²⁸⁾

또한 「압록강」은 전쟁시기와 전후 복구시기에 창작된 다양한 칸타타와 오라토리오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즉 이후의 작곡가들은 「압록강」에서 보여준 테마와 음악적 스타일, 즉 위협에 직면한 조국에 대한 인민들의 애국주의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는 조선 인민의 투쟁의 모습을 배운 셈이며, 이후 윤영기의 「어랑천」, 황순현의 「보천보의 햇불」, 김영배의 「백두산」, 이정언의 「조선은 싸운다」와 같은 칸타타 작품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작품의 극적 구성과 주인공이 겪는 사건, 심리, 사상 등을 묘사하기 위해 칸타타를 레시타티브 독창, 합창, 관현악

28) 리히립, 위의 책(1956), pp.23~24.

북한 교성곡의 효시 「압록강」 17

등으로 구성함으로써 청중들에게 작품의 사상을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대중들은 칸타타 장르에 익숙하게 되었다²⁹⁾고 보았다.

1956년의 평가를 종합해보면, 거대한 역사적 전변과 인민의 투쟁을 보여주기 위한 음악 양식으로 칸타타가 적합하였으며, 김옥성 작곡의 「압록강」을 시작으로 칸타타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칸타타의 음악적 구성과 스타일은 소련의 영향으로 이루어졌다는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압록강」은 북한 음악계에서 계속 연주되었으며, 김옥성이 병으로 사망한 다음해인 1966년에 『김옥성작곡집 2』가 출판되었다. 이 작품집에는 박은용이 쓴 김옥성의 생애와 활동이 있으며, 가요곡과 독창곡, 중창곡, 합창곡, 교성곡, 동요곡 등이 실려있는데, 교성곡 부분에 「압록강」 전편이 수록되어 있다.

박은용은 「김옥성의 생애와 활동」에서 “교성곡 「압록강」은 사상-주제에 서뿐만 아니라 음악적형상에 이르기까지 전투적합창 장르로 전변시켜 놓은 작품이라는데 본질적 의의”³⁰⁾가 있으며, “불후의 명곡으로 된 교성곡 「압록강」”³¹⁾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박은용은 1956년의 것과는 달리 제2악장을 강조하면서 혁명성과 전투성뿐만 아니라 서정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교성곡 「압록강」 제1악장에서 성숙하기 시작한 그의 서정의 리상은 계속 심화발전하여나갔다. 교성곡 「압록강」의 서정은 구성지고 심각한 것으로서 혁명투사들의 조국에 대한 생각과 그들의 고결한 정신적 품모 등을 진실하게 전달하였다”³²⁾면서, 「압록강」에 나타나는 혁명성과 조국애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박은용의 평가를 10년 전의 것과 비교해 보면, 이전 시기의 전투성이나 혁명성을 강조했던 것에 더하여 “서정”이 추가되고, 소련의 역할이 제외된 것과 함께 “불후의 명곡”이라는 평가를 더해 놓았음을 볼 수 있다.

29) 리히림, 위의 책(1956), pp.51~52.

30) 박은용, 「김옥성의 생애와 창작활동」, 『김옥성 작곡집 제2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6, p.6.

31) 박은용, 위의 책, p.5.

32) 박은용, 위의 책, p.7.

18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1960년대 후반에는 주체사상이 완성되어 공고화되었으며, 이후 북한의 모든 저술들에서 주체사상의 창시자라는 김일성의 이상화에 애쓰는 정황을 발견할 수 있다. 음악부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유일사상체제와 김일성 이상화 작업이 완성되었던 1970년대 후반인 1979년, 리히림은 1956년에 쓴 「해방후 10년간의 조선음악」을 보완하여 『해방후 조선음악』을 저술하였는데, 이 책에서 서술된 「압록강」에 대한 평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우선 음악 형식에서 교성곡은 혁명전통과 영웅서사시적 현실을 가진 상황에 적합한 종류로 보고 있으며, 대표적인 작품으로 「압록강」을 들고 있다. 또한 교성곡 「압록강」은 장편서사시 「백두산」에 기초하여 김일성이 조직 영도한 항일무장투쟁시기 항일유격대의 조국진군모습을 4개 악장의 웅장한 규모를 가진 교성곡 형식에 반영한 작품이며, 작품의 규모에서 웅장하고 영웅 서사시적일뿐 아니라 그 형상에서 음악적 표현의 성실성과 묘사의 진실성을 보여주었기에 근로자들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전시와 전후시기 교성곡 장르의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³³⁾하였다.

이를 보면, 전체적인 기조는 1956년의 것과 비슷하나, 1956년의 것이 작품의 형상적 특징과 교성곡 장르의 개척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1979년의 서술은 전에 보이지 않던 영웅, 즉 항일무장투쟁을 조직하고 영도했던 김일성의 활동과 형상이 음악에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교양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본 것이다. 즉, 1950년대와 1970년대의 동일저자에 의한 「압록강」의 평가에서 우리는 변화된 정세를 반영한 북한의 평단의 변화를 확인하게 된다.

이후 「압록강」에 대한 평가는 80년대 말과 90년대 초반에 출판된 『문학예술사전』에서 찾을 수 있다. 1988년의 서술³⁴⁾과 1993년의 서술³⁵⁾은 대체

33) 리히림, 『해방후 조선음악』, 문예출판사, 1979, pp.51~52.

34) 『문학예술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8.

35) 『문학예술사전』,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3.

북한 교성곡의 효시 「압록강」 19

로 비슷하다. 즉, 1악장부터 4악장까지 선율의 주제와 가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곡 전체의 형상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1악장과 3악장에서는 조국의 비운과 압록강의 웅장한 모습을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2악장과 4악장에서는 조국 광복을 위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불요불굴의 투지와 영웅성을 구현하면서 전투적인 형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았다. 이 두 글에서는 총 4악장의 교성곡 「압록강」에 대한 음악적 평론을 각 악장별, 그리고 악장 내의 세부 주제별로 세세하게 서술해 놓았으며, 그 내용은 1950년대 서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이 두 서술의 차이는 먼저 전체적인 내용면에서 1988년의 내용이 좀 더 확대되어 있다는 점이며, 1993년의 것은 1988년의 내용을 축소해서 실어놓았다는 점이다. 또한 부분적으로 1993년의 서술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1악장의 서술에 “민족적선율이 뜨겁게 흐른다”는 점과 마지막에서 “교성곡 「압록강」은 종래의 극음악창작원칙에 의하여 씌어진 것으로 하여 일정한 제한성은 있으나” 인민들을 항일혁명전투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였던 작품으로 설정한 것이다. 즉 1990년대의 내용은 그 이전의 것에 비해 민족적 선율이 부각되고 있으며, 교성곡의 장르적 제한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필자의 분석에 의하면 「압록강」에서 민족적 선율이나 감성이 드러나는 부분은 1993년 『문학예술사전』이 밝힌 바와 같이 1악장이나, 사전에서 제시된 것처럼 1악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가 아니라 첫 번째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민족적 선율이 시작된다. 즉, 가사로 볼 때 1악장 제 5행의 “떼목이 내린다” 중 “내린다”에 해당하는 제 29마디와, 남성독창으로 불리는 10행부터 17행까지 이어지는 1악장의 둘째부분인 제 53~86마디의 선율에서 민족적 선율이나 민족적 감성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선율 진행의 양상은 종지형의 느낌이 나는 “라-도-시-라” 혹은 “라-라-미-라”의 음형이며, 육자배기토리의 선율형을 느리게 사용함으로써 비장하고 숙연한 느낌을 갖게 한다.

20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라-도시-라 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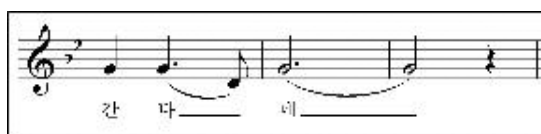
〈악보 1〉 제29마디



〈악보 2〉 제66-67마디



〈악보 3〉 제84-86마디 (라-라미-라 음형)



이렇게 93년의 서술이 그 이전과는 달리 민족적 선율이 부각된 이유를 추측해보면, 아마도 1980년대 후반부터 이론으로 제기된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영향으로 보인다. 음악과 무용 등의 분야에서 민족적 성향을 강조하는 경향이 90년대부터 시작되며, 그것이 「압록강」에 까지 미쳐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민족적 선율에 대한 곡 해석과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장엄한 혁명적 사실을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영웅서사시적 형상을 가장 잘 부각시킬 수 있는 장르가 교성곡이었다고 말하면서도 교성곡의 장르적 제한성을 제시했다는 점은 암시하는 바가 크다. 즉 이들이 말한 교성곡의 장르의 제한성이란 가사가 절가형식이 아니며, 아리아나 대화창 등으로 이루어진 선율이 매우 까다롭고 따라 부르기 어렵기 때문에 인민들의 감정과 구미에 맞지 않다³⁶⁾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교성곡을 대체할만한 장르인 합창과 관현악이 1980년대 초에 혁명영화 「조선의 별」의 주제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합창과 관현악은 음악의 가사가 철저하게 북한 음악의 기본형태인 절가형식

36) 류신정, 「합창과 관현악곡은 우리 나라에서 탐구하고 발견한 새로운 형식의 성악종류이다」, 『조선예술』 1993년 제11호, p.18.

북한 교성곡의 효시 「압록강」 21

을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합창과 관현악은 인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인민성과 통속성을 확보하고 있다³⁷⁾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교성곡이 부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성곡을 대체할 합창과 관현악 장르가 개척되었기 때문에 1993년 10월초에 평양모란봉극장에서 있었던 <김옥성 음악회>에는 김일성이 곡도 좋고 내용도 좋다는 교시³⁸⁾를 내렸던 교성곡 「압록강」은 연주되지 않고, 오로지 중창과 합창곡 그리고 전 시가요가 연주되었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 보면, 북한 음악에서 절가형식 확립되어 고착된 1980년대 이후부터 교성곡 「압록강」은 북한에서 연주되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평양에서 개최된 윤이상음악회에서 윤이상 작곡의 교성곡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가 연주되면서 교성곡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1년 강정순이 쓴 김옥성의 명곡창작비결에 관한 글에서 확인된다. 즉, “평화적민주건설시기에 창작한 교성곡 《압록강》은 광복후 작곡가들이 수령을 어떻게 받들어 모셔야 하는가를 실천적 모범으로 보여준 뚜렷한 실례이다. 조기천의 장편서사시 《백두산》에 기초하여 창작한 교성곡 《압록강》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발휘된 항일혁명투사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음악작품에 담아 우리 음악계에 올린 첫 서사시적수령송가작품이다”³⁹⁾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1949년 평론가 안함광의 평가에서 시작하여 2001년 강정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교성곡 「압록강」에 대한 시기별 평가의 추이를 정치상황과 연관해서 살펴보았다. 「압록강」이 조기천의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가사로 채택하였다는 점과 북한에서 교성곡의 시초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혁명적인 항일무장투쟁의 서사를 그려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지속되었었다. 그러나 합창과 관현악이라는 장르의 개발과 성악부문에서 절

37) 류신정, 위의 책, p.18.

38) 은영남, 「(수기) 위대한 사랑속에 그는 가장 행복한 작곡가로 남아있습니다」, 『조선예술』 1993년 제5호, p.53.

39) 강정순, 「명곡창작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조선예술』 2001년 제3호, p.64.

22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가를 기본 형식으로 채택하면서 교성곡은 장르의 제한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김옥성의 교성곡 「압록강」은 연주되지 않고 점차 잊혀져 가고 있었다. 그러나 윤이상의 교성곡이 연주되면서 북한 교성곡 장르의 시초가 된 김옥성의 「압록강」이 다시 부각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50년대에는 소련 음악의 영향력을 상정하였던 것에 비해 종파투쟁에서 김일성파의 승리와 1960년대 주체사상의 완비 등 기반이 다져진 후 소련의 역할은 더 이상 중요한 논점이 되지 못했던 것도 알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1990년대에는 음악에서의 민족주의가 요구되면서 「압록강」에서도 그 이전의 평가에서 거론되지 못했던 “민족적 선율”이 서술된 것을 볼 수 있었다.

5. 나가며

1947년 조기천의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바탕으로 1949년 작곡된 김옥성의 「압록강」은 전작이 수령형상화의 시초가 된 문학작품이라는 평가처럼 이 역시 항일무장투쟁의 내용을 교양하고 수령형상화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 음악작품이다.

본고에서는 북한 교성곡의 최초 작품인 김옥성 작곡의 「압록강」의 음악사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압록강」 창작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음악계의 분위기를 살펴보았으며, 가사의 전용양상과 이 작품에 대한 시대적 평가의 추이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김옥성이 「압록강」을 작곡하던 시기인 평화적민주건설시기에는 새로운 유형의 음악을 개척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와 함께 기존의 부르주아 음악가들에게서 보이던 반동적이며 퇴폐적인 사조를 몰아내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방법론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만이 고상한 음악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교성곡의 효시 「압록강」 23

다음으로 장편서사시 「백두산」에서 교성곡 「압록강」으로의 형상의 전환 양상을 보기 위해 「압록강」의 가사를 분석해 보았다. 가사는 「백두산」의 시 중에서 보천보전투를 묘사하는 항일 빨치산들이 압록강을 넘어 국내로 진격하는 장면을 표현한 6장에 집중되었으며, 이중에서도 전반부에 해당하는 1부터 3의 시를 채택하여 전체 4악장의 가사에 유용하였음을 보았다. 또한 시어를 가사에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음악적 구성에 맞게 시어를 반복하거나 일부 삭제해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성곡 「압록강」에 대한 시기별 평가의 추이를 정치상황과 연관해서 살펴보았다. 「압록강」이 조기천의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가사로 채택하였다는 점과 북한에서 교성곡의 시초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혁명적인 항일무장투쟁의 서사를 그려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합창과 관현악이라는 장르의 개발과 성악부문에서 절가를 기본 형식으로 채택하면서 교성곡은 장르의 제한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김옥성의 교성곡 「압록강」은 연주되지 않고 점차 잊혀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윤이상의 교성곡이 연주되면서 북한 교성곡 장르의 시초가 된 김옥성의 「압록강」이 다시 부각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50년대에는 소련 음악의 영향력을 상징하였던 것에 비해 종파투쟁에서 김일성파의 승리와 1960년대 주체사상의 완비 등 기반이 다져진 후 소련의 역할은 더 이상 중요한 논점이 되지 못했던 것도 알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1990년대에는 음악에서의 민족주의가 요구되면서 「압록강」에서도 그 이전의 평가에서 거론되지 못했던 “민족적 선율”이 서술된 것을 볼 수 있었다.

24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참고문헌

『김일성저작집 2(1946. 1~1946.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김일성저작집 3(1947. 1~1947.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리히림, 『해방후 조선음악』, 문예출판사, 1979.

『문학예술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8.

『문학예술사전』,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3.

『문화전선』 제3집,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1947.

강정순, 「명곡창작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조선예술』 2001년 제3호.

고현철, 「북한 정치사와의 상관성으로 살펴본 조기천의 1955년판 『백두산』」, 국제어문 제35집, 국제어문학회, 2005. 12.

김재용, 「조기 북한 문학의 형성 과정과 냉전 체제」,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4.

류신정, 「합창과 관현악곡은 우리 나라에서 탐구하고 발견한 새로운 형식의 성악종류이다」, 『조선예술』 1993년 제11호.

리히림, 「해방후 10년간의 조선음악」, 『해방후 조선음악』, 조선작곡가동맹중앙위원회, 1956.

리히림, 「해방후 조선 음악과 조선 인민의 음악생활에 준 소련 음악의 영향」, 『해방후 조선음악』, 조선작곡가동맹중앙위원회, 1956.

박은용, 「김옥성의 생애와 창작활동」, 『김옥성 작곡집 제2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6.

안함광, 「예술축전의 성과와 교훈 - 1949년도 예술을 보고-」, 『안함광 평론선집 4-문학과 현실』, 박이정, 1998.

여지선, 「조기천의 『백두산』과 개작의 정치성」, 『우리말글』, 제36집, 우리말글학회, 2006.

은영남, 「(수기) 위대한 사랑속에 그는 가장 행복한 작곡가로 남아있습니다」, 『조선예술』 1993년 제5호.

Abstract

Aprokgang, the First Cantata in North Korea

Bae, Ihn Gyo

This paper reviews social and musical context of the times when *Aprokgang*, the first cantata of North Korea, was composed by Kim, Okseong. It also analyses how its lyrics were constructed and how it was diversely evaluated upon different times. The purpose of such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significations of *Aprokgang* in the history of music in North Korea.

During the period of 'Peaceful Democratic Construction' when Kim, Okseong created *Aprokgang*, there was a demand of the times that a new type of music should be developed. The elegant music at that time was understood as the kind of music that expelled reactionary and decadent trend prevailed in the music composed by existing bourgeois composers and uses realistic methodology of socialism

Next, the lyrics of *Aprokgang* was analyzed to find how 「Baekdusan」, a long epic poem, was adapted as lyrics of *Aprokgang*. The 6th chapter of the epic poem depicting 'Bonchonbo battle'

26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where anti-Japan north Korean partisans crossed the Aprok river and advanced across the border into the Korean peninsula was most frequently used for the music. Especially, the beginning part from the 1st to 3rd stanza was selected as the lyrics for the entire 4 movements of music. However, the words of poem were modified with the technique of repetition and omission to fit into the musical structure of *Aprokgang*.

Lastly, it was reviewed how the cantata, *Aprokgang* was understood through different political environment. Basically positive perspective lasted for longtime considering that *Aprokgang* used *Baekdusan*, a long epic poem written by Cho, Gicheon, as its lyrics, that it was the first cantata in the history of North Korea music, and that it conveyed the narrative of minitary resistance against Japanese colonization as well as idealization of suryeong(leader). However, developing new genre of chrus and orchestral and using style of Jeolga for vocal were pointed out as limit in its genre as cantata. Accordingly, *Aprokgang* by Kim, Okseong has gradually become forgotten. However, after playing Yun, Isang' s cantata, it was possible to find that the awareness of Kim, Okseong' s *Aprokgang* was increased. Moreover, with the influx of nationalistic trend in music in 1990s, 'national melody' has been commented to appreciated the musical value of *Aprokgang*.

북한 교성곡의 효시 「압록강」 31

주제어: 장편서사시[jangpyeongseosasi(long epic poem)], 백두산(baekdusan), 김옥성(Kim, Onseong), 교성곡[Gyoseonggok(cantata)], 압록강(Aprokgang), 수령형상화[Suryonghyeongsanhwa(idealization of suryeong)], 민족적선율[minjokjeok seonyool(national melody)]

논문 접수일	2010. 11. 10.
논문 심사일	2010. 11. 25.
게재 확정일	2010. 12. 10.